Session 24 God's Rebuke and David's Repentance (2 Sam. 12; Ps. 51) 제 24 강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삼하 12 장, 시 51 편)

I. NATHAN ANNOUNCED THE LORD'S JUDGMENT AND FORGIVENESS (2 SAM. 12:1-14)

나단이 주님의 심판과 죄사함을 전하다 (삼하 12:1-4)

A. This tragic story takes a sudden turn for the good when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12:1-4). Nathan spoke a parable about two men—one rich and one poor. The rich man owned many flocks of sheep (v. 2), but the poor man only had one little lamb that he cherished like a daughter (v. 3).

이 비극적인 스토리는 주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을 때에 갑작스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12:1-4). 나단은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한다. 이 부자에게는 많은 양이 있었지만 (2 절),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딸처럼 아끼고 있던 한 마리의 작은 양 밖에 없었다 (3 절).

¹Then the <u>LORD sent Nathan to David</u>. And he came to him, and said to him: "There were two men in one city, one rich and the other poor. ²The rich man had exceedingly many flocks...

³But the poor man had nothing, except one little ewe lamb...it grew up together with him...and it was <u>like a daughter to him.</u> ⁴And a traveler came to the rich man, who refused to take from his own flock...but he took the poor man's lamb and prepared it for the man who had come to him." (2 Sam. 12:1-4)

 $\frac{1}{9}$ 역호와에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은 부하고 한사람은 가난하니 $\frac{2}{1}$ 부한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frac{3}{1}$ 가난한사람은 아무것도 없고자기가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u>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들</u> $\frac{4}{1}$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삼하 12:-4)

B. David pronounced a judgment against the rich man (12:5-6). By using a story, Nathan drew David's heart into the story, expressing anger and compassion. By judging the rich man, David condemned himself. Human nature is quick to see sins in others that we ourselves commit, but in other ways.

다윗은 이 부자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2:5-6). 나단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윗의 마음에 분노와 궁휼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했다. 다윗은 이 부자를 정죄함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죄는 잘 보지만,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본다.

⁵So David's anger was <u>greatly aroused</u> against the man, and he said to Nathan, "As the LORD lives, the man who has done this <u>shall surely die!</u> ⁶And he shall restore <u>fourfold</u> for the lamb, because he did this thing and because he had no pity." (2 Sam. 12:5-6)

 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u>노하여</u>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u>마땅히 죽을 자라</u> 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u>네 배</u>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삼하 12:5-6)

C. Nathan made the application to David (12:7-10). First, the Lord reminded David of how He blessed him (12:7-8); next the Lord identified his sins (12:9) and the judgment coming to him (12:10-12).

나단은 이를 다윗에게 적용했다 (12:7-10). 첫째, 주님은 그분이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상기시켜주신 후 (12:7-8), 다윗의 죄들을 밝히시고 (12:9) 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다 (12:10-12).

⁷Then Nathan said to David, "<u>You are the man!</u> Thus says the LORD God of Israel: 'I anointed you king over Israel, and I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Saul. ⁸I gave you your master's house and your master's wives...if that had been too little, <u>I also would have given you much more!</u> ⁹Why have you <u>despised the commandment</u> of the LORD, to do evil in His sight? You have killed Uriah the Hittite with the sword; you have taken his wife to be your wife...¹⁰Now therefore, the <u>sword shall never depart from your house</u>, because you have <u>despised Me</u>...¹¹Behold, I will raise up <u>adversity against you from your own house</u>; and I will take your wives... and give them to your neighbor, and <u>he shall lie with your wives</u>... ¹²I will do this thing before all Israel..."

⁷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u>당신이 그 사람이라</u>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⁸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u>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u> ⁹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u>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u>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¹⁰이제 <u>네가 나를 업신여기고</u> ... <u>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u> 하셨고 ¹¹ ... 보라 내가 <u>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u> 내가 네 눈 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u>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u> ¹² ...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삼하 12:7-12)

- 1. *Much more*: The Lord in his great generosity would have given David much more.
 -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은 다윗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을 분이다.
- 2. **Despised Me**: David's sin was personal to the Lord—he despised the Lord and His Word. He had despised the Ten Commandments by committing murder and adultery. Yes, David also sinned against Bathsheba, Uriah, the soldiers who died with Uriah, and all of their families.
 -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의 죄는 주님께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다. 다윗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는 살인과 간음을 저지름으로 10 계명을 멸시했다. 그렇다, 또한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 또 우리아와 함께 죽은 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죄를 지었다.
- 3. **Sword**: God's judgment on David was that the sword would never depart from his house (12:10). This judgment in David's house is seen over the next eight chapters (2 Sam. 13-20). Four of David's sons died unnatural deaths—his unnamed son (12:18), Amnon (13:29), Absalom (18:14-15), and Adonijah (1 Kgs. 2:25).
 - **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12:10). 다윗의집에 대한 이 심판은 다음에 이어지는 8 개 장에 걸쳐 나온다 (삼하 13-20 장). 다윗의 아들 중 4 명,이름을 모르는 아들 (12:18), 암논 (13:29), 압살롬 (18:14-15), 아도니야(왕상 2:25)는 자연적으로 죽지 않았다.
- D. *Adversary*: The Lord promised to raise up an adversary from his own family—a man who would have sexual relations with his wives—and it would be broadcast publicly. His son Absalom sought to take the kingdom from David, and all Israel learned that he had violated David's wives sexually.

재양: 주님은 그의 집에 재앙, 즉 어떤 이가 그의 아내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다. 그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에게서 나라를 빼앗으려 하며, 그가 다윗의 아내들을 성적으로 범한 것이 온 이스라엘이 알려진다.

E. The results of God's promises are often delayed—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For example, the Lord promised David he would be king of Israel (1 Sam. 16:11), but it did not occur for 20 years.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종종 지연이 되곤 한다. 예를 들어 주님은 다윗에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지만 (삼상 16:11), 이는 20 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었다.

¹¹Because the sentence against an evil work is <u>not executed speedily</u>, therefore the heart of the sons of men is fully set in them to do evil. (Ecc. 8:11)

¹¹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u>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u>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전 **8:11**)

F. David confessed his sin (12:13-14). He did this without rationalizing or shifting the blame to others.

다윗은 죄를 고백했다 (12:13-14).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다른 이를 탓하지 않았다.

¹³So David said to Nathan, "<u>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u>." And Nathan said to David, "The LORD also has <u>put away your sin</u>; you shall not die. ¹⁴However, because by this deed you have given great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e, the child also who is born to you shall surely die." (2 Sam. 12:13-14)

¹³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u>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u>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u>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u>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¹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삼하 12:13-14)

1. *I have sinned*: David saw his desperate situation before God as a sinner needing mercy. Acknowledging our sin to the God of mercy brings us hope. By confessing our sin we step into the place to experience God's extravagant forgiveness and goodness.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다.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온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용서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2. **Put away your sins**: One of the most power declarations a person can hear is that the Lord put away our sins. The Law declared that murderers and adulterers must die (Lev 20:10; 24:17). David lived for the same reason that we live—Go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포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다. 율법은 살인한 자나 간음한 자가 죽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다 (레 20:10; 24:17).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이유로 살아 있을 수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이다.

G. The Lord forgave David, but He did not remove all consequences of David's sin. His sin gave great occasion for the Lord's enemies to blaspheme the LORD (12:14).

주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 하지만 그분은 다윗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함께 제거하지는 않으셨다. 그의 죄는 주님의 대적들이 그분을 비방함 큰 기회를 제공했다 (12:14).

II. THE LORD EXPRESSES JUDGMENT AND FORGIVENESS (2 SAM. 12:15–25)

주님이 심판과 자비를 나타내심 (삼하 12:15-25)

A. The LORD struck the child with illness, even though David pleaded for his healing (12:15-19).

주님은 다윗이 병 나음을 위해 간구를 했음에도 그의 자녀들을 병으로 치셨다 (12:15-19).

¹⁵Then Nathan departed to his house. And the <u>LORD struck the child</u> that Uriah's wife bore to David, and it became ill. ¹⁶David therefore <u>pleaded with God</u> for the child, and <u>David fasted</u> and went in and lay all night on the ground. ¹⁷So the elders...went to him... ¹⁸Then on the <u>seventh day</u>...the child died. And the servants of David were afraid to tell him that the child was dead... he may do some harm!" ¹⁹When David saw that his servants were whispering, David perceived that the child was dead. Therefore David said to his servants, "Is the child dead?" And they said, "He is dead." (2 Sam. 12:15-19)

15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u>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시매</u> 심히 앓는지라 ¹⁶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u>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u>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¹⁷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 ¹⁸ <u>이레 만에</u>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¹⁹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삼하 12:15-19)

- Uriah's wife: referring to Bathsheba this way highlighted the adulterous union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간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 2. *On the seventh day*: The child died after being sick for seven days.

이레 만에: 이 자녀는 7일 동안 병을 앓은 이후에 죽었다.

B. David worshiped God (12:20-23). The people were perplexed by David's reaction.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했다 (12:20-23). 사람들은 다윗의 반응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했다.

²⁰So David arose from the ground, washed and anointed himself, and changed his clothes; and he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and worshiped. Then he went to his own house; and when he requested, they set food before him, and he ate. ²¹Then his servants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you have done? You fasted and wept for the child while he was alive, but when the child died, you arose and ate food." ²²And he said, "While the child was alive, I fasted and wept; for I said, 'Who can tell whether the LORD will be gracious to me, that the child may live?' ²³But now he is dead; why should I fast? Can I bring him back again? I shall go to him, but he shall not return to me." (2 Sam. 12:20-23)

²⁰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u>경배하고</u>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²¹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u>이 일이 어찌됨이니이까</u> 하니 ²²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u>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u> ²³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삼하 12:20-23)

1. *Worshiped*: The baby's death led David to worship instead of questioning God with offense. David accepted both God's grace and judgment; he had confidence in God's love for him. He understood that the child's death did not mean that the Lord stopped loving David.

경배하고: 이 아기의 죽음에 대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실족하여 질문하기보다 주 앞에 경배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모두를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녀의 죽음이 주님이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2. Who can tell?: David knew that the Lord sometimes relented from judgment (Joel 2:13).

누가 알까?: 다윗은 때로 주님이 심판을 돌이키심을 알고 있었다 (욜 2:13).

¹³...He is gracious and merciful...and of great kindness; and He relents from doing harm. ¹⁴Who knows if He will turn and relent, and leave a blessing behind Him? (Joel 2:13-14)

13 ...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 <u>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u>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u>욕</u> 2:13-14)

C. David comforted Bathsheba, and later Solomon was born (12:24-25).

다윗은 밧세바를 위로했으며, 이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된다 (12:24-25).

²⁴Then David <u>comforted</u> Bathsheba his wife, and went in to her and lay with her. So she bore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u>Solomon</u>. <u>Now the LORD loved him</u>, ²⁵and He sent word by the hand of Nathan the prophet: So he called his name <u>Jedidiah</u>, because of the LORD. (2 Sam. 12:24-25)

²⁴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u>위로하고</u>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u>솔로몬</u>이라 하니라 <u>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u> ²⁵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u>여디디야</u>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삼하 12:24-25)

1. At the birth of Solomon, the Lord had another message for David from Nathan. David was to name the new child Jedidiah, which literally means "beloved of the LORD." The same prophet who spoke a message of God's judgment now gave a message of God's love.

주님은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하셨다. 다윗은 이 새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야 했는데, 이 이름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2. The presence of the child whom the Lord named according to His love was a message that David needed to be reminded of during the many difficult years ahead.

다윗에게 주님이 그분의 사랑을 따라 이름을 지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임할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메시지였다.

3. Bathsheba had four sons; David named one of them Nathan (1 Chr. 3:5).

밧세바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다. 다윗은 그 아들 중 하나를 나단이라고 이름 지었다 (대상 3:5).

D. Michal was Saul's choice for David; Abigail was God's choice for David; Bathsheba was David's choice for David. God redeemed this most disastrous situation with Bathsheba through His grace.

미갈은 다윗을 위해 사울이 택한 여인이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었다. 밧세바는 다윗 자신을 위해 그가 택한 여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 맞이한 이 가장 처참한 상황을 그분의 은혜로 구하셨다.

III. PSALM 51: THE LORD WILL NOT REJECT A BROKEN AND CONTRITE HEART

시 51 편: 주님은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A. The title of this psalm indicates that it was written soon after Nathan confronted David. It is a model of confession. The place of confession is not a place of condemnation, but of salvation.

우리는 이 시편의 제목을 통해, 이것이 나단이 다윗을 맞서서 대면한 이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시편은 죄의 고백의 한 모델이 된다. 자백의 자리는 정죄함의 자리가 아닌, 구워의 자리이다.

B. David prayed to receive and experience God's mercy and forgiveness (51:1-2).

다윗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죄 사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51:1-2).

¹Have mercy upon me, O God, according to Your lovingkindness;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Your tender mercies, blot out my transgressions. ²Wash me thoroughly from my iniquity, and cleanse me from my sin. (Ps. 51:1-2)

 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 51:1-2)

C. *David's confession of his great sin (51:3-6)*: About one year had passed between David's adultery and this confession of sin. It is possible that he was seeking to somehow rationalize parts of it.

큰 죄를 자백한 다윗: 다윗이 이 죄를 고백한 것은 다윗이 간음한 지 약 1 년이 지난 시간이었다. 그는 아마도 이 죄를 합리화함 어떤 방법을 찾고 있었을 것이다.

³For <u>I acknowledge my transgressions</u>, and my sin is always before me. ⁴<u>Against You</u>, You only, have I sinned, and done this evil in Your sight—that You may be found <u>just</u> when You speak, and <u>blameless</u> when You judge. ⁵Behold, I was brought forth in iniquity, and in sin my mother conceived me. ⁶Behold, You desire truth in the inward parts, and in the hidden part You will make me to know wisdom. (Ps. 51:3-6)

³무릇 <u>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u>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⁴ <u>내가 주께만 범죄하여</u>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u>의로우시다</u>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u>순전하시다</u> 하리이다 ⁵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⁶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 **51:3-6**)

1. **Against You**: He saw that it was a sin first and primarily against God (v. 4). He knew it was a sin against Uriah, Bathsheba, and others, but the greatest sin was in despising the Lord.

주께만 범죄하여: 그는 이 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임을 알고 있었다 (4 절). 그는 이 죄가 우리아와 밧세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지은 죄임을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크게 하나님을 멸시한 죄임을 알고 있었다.

2. **Just**: He acknowledged that God's judgment on him was just and blameless and not too harsh.

의로우시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시며 순전하심을 인정했다.

D. David's request for cleansing and restoration (51:7-12):

자신을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다윗의 간구 (51:7-12).

¹⁰Create in me a <u>clean heart</u>, O God, and renew a <u>steadfast spirit</u> within me. ¹¹Do not cast me away from Your presence, and <u>do not take Your Holy Spirit from me</u>. ¹²Restore to me the <u>joy of Your salvation</u>, and uphold me by <u>Your generous Spirit</u>. (Ps. 51:10-12)

 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u>정한 마음</u>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u>정직한 영</u>을[표준새번역: <u>견고한 심령</u>으로] 새롭게 하소서 <math>^{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u>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u> 12 <u>주의 구원의 즐거움</u>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0-12)

1. *Create in me a clean heart*: David prayed that terrible inward turmoil of Psalm 38:3-10 would lift from him. Lustful desires escalate when they are acted upon. Thus David was also praying that the sinful desires recently stirred in him by his immoral actions would cease.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은 시편 38:3-10 절의 끔찍한 내적인 고통이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기도했다. 정욕에 가득 찬 갈망은 이를 실제로 행할 때에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다윗은 또한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자신 안에서 끓어오른 죄악된 갈망이 멈추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2. **Renew a steadfast spirit**: David prayed for the renewing of his steady resolve to obey God.

정직한 영을[표준새번역: <u>견고한 심령</u>으로]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한 자신의 견고한 결심을 새롭게 해주시길 기도했다.

3. **Restore the joy of salvation**: He had not lost his salvation, but he had lost the joy of it.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구원을 잃은 것이 아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었다.

- 4. **Do not take your Spirit from me**: This referred to the Spirit's anointing on David to be king. The anointing of kingship was removed from Saul (1 Sam. 16:14). David was praying that his leadership calling not be removed. In the Old Testament times God gave His Spirit to empower kings and prophets for special acts of service. New Testament believers all possess the indwelling Spirit in a permanent way.
 -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는 왕으로서 다윗 위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부음을 말한다. 왕의 기름부음은 사울에게서 떠났다 (삼상 16:14).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리더십으로서의 부르심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신의 성령을 특별한 섬김을 위해 왕과 선지자들 위에 부어주심으로 강건케 하셨다.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내주하시는 성령을 영원히소유하고 있다.
- 5. *Casting away from God's presence*: David did not want to lose the privilege of sitting in front of the ark to gaze on God's beauty. This one thing he had desired all the day of his life.
 -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특권을 잃지 않기를 원했다. 이는 다윗이 생전에 구했던 한 가지 일이었다.
- 6. *Generous spirit*: Some translate the Hebrew as "a free, cheerful spirit"—thus without shame.
 - 자워하는 심령: 어떤 성경 번역은 이를 수치심이 없는 "자유로운, 상쾌한 영"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 E. David declared his confidence in the grace of God to call sinners to God (51:13-17). David would show others how God deals with repentant sinners, using his own life as an example. The response that God wants most is a contrite heart that quickly confesses our failure and re-commits to obey Him. He does not want us to rationalize our sin or make excuses for it, but to forsake it.
 - 다윗은 죄인들을 주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선포했다 (51:13-17). 다윗은 자신의 삶을예로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지를 다른 이들이게 알리고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원하시는 반응은 우리의 실패를 속히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며, 그분께 순종하기를다시 헌신하는 마음이다.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이에 대해 변명을 하기보다, 이를 멈추기를 원하신다.
 - ¹³Then <u>I will teach transgressors Your ways</u>, and sinners shall be converted to You...¹⁵O Lord, open my lips, and my mouth shall show forth Your praise. ¹⁶For You do not desire sacrifice, or else I would give it; You do not delight in burnt offering. ¹⁷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u>a broken and a contrite heart—these</u>, O God, You will not despise. (Ps. 51:13-17)
 - ¹³그리하면 <u>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u>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¹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¹⁵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¹⁶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¹⁷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u>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u> (시 **51:13-17**)